

매일 전화로 확인하지 않아도, 부모님의 하루가 보여요.

부모님택탁자위태블릿이 하루를 함께 챙기고, **걱정되는 일만** 휴대폰으로 알려드려요.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면 운영 시간에는 **사람이 직접** 연락해요.



“전화를 안 받으시면 가슴이
철렁”

오늘 아침 인사를 하셨는지 먼저 보세요

"평소처럼 지내고 계세요"와 오늘 하신 일이 앱에 보여요.

“약은 제때 드셨을까”

드신 시각이 남고, 안 드시면 알려요

태블릿이 소리로 여쭙고, 부모님은 [먹었어요]만 누르세요.

“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갈
수 없다”

평소와 다르면 먼저 알려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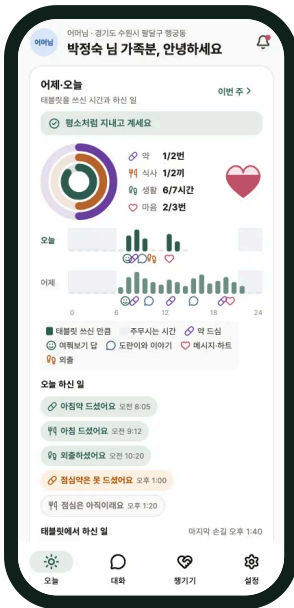
오래 반응이 없으면 태블릿이 "괜찮으세요?"를 여쭙고 자녀에게 알려요.

“나 혼자 다 챙길 수는 없다”

형제가 함께, 알림은 사람마다

모두 같은 소식을 보고, 받을 알림은 각자 골라요.

자녀 앱에는 이렇게 보여요



오늘 하루를 한눈에

약·식사·생활·마음을 링 하나로. 점심약을 못 드셨으면 그것도 보여요.

걱정되는 일만 소리로

알림마다 소리·조용히·안 받음을 골라요. 밤사이 소식은 아침에 한 번에.

부모님이 부르시면 바로

[연락해 줘]·[오늘은 좀 그래요]는 끌 수 없는 알림으로 바로 와요.

아무도 확인하지 못하면

0분

태블릿이 "괜찮으세요?"
여쭙고, 답이 없으면 자녀
모두에게

30분

아직 아무도 확인하지
않으면 한 번 더

1시간

운영 시간(10~16시)엔
운영팀이 직접 연락

부모님은 **누르기**와 **말하기**만. 태블릿은 택배로 가고 전원만 켜면 돼요. 카메라는 영상통화
때만, 도란이와 나눈 이야기는 자녀에게도 안 보여요.

솔직하게 말씀드려요. 응급 신고 서비스가 아니에요(위급할 땐 119). 늦잠과 아프신 것을
구별할 수 없어 "확인해 보세요"라고 알려 드려요.

상담 신청은 QR 로

휴대폰 카메라로 오른쪽 네모를 비추면 신청서가 열려요. 하루 안에
연락드려요.

[caremate365.com · /story](https://caremate365.com/story)

